

감옥에 갇힌 미국인들...미술은 저항한다

뉴스와이 | 기사입력 2013-04-14 11:15



감옥에 갇힌 미국인들...미술은 저항한다

회화부터 설치미술까지 다양한 장르를 통해 미국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조명하고 있는 작가 스티어링 루비가 처음으로 내한했습니다. 송광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짙은 검정색으로 도색된 도자.

마치 창자처럼 뒤엉킨 곡선은 삶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인간의 고통을 상징하는 듯 보입니다.

미국 갱단들이 그린 그래피티에 영감받아 만든 스프레이 작품.

얼룩진 벽에서 영감을 얻어 스프레이 페인트로 캔버스를 채색했습니다.

여러 색이 포개지고 스치면서 모네의 수련시리즈 같은 모호함이 느껴집니다.

전쟁으로, 가난으로, 그리고 폭력으로 고통받는 미국의 현실을 해부하는 40대 작가 스티어링 루비. 도자, 천, 회화를 이용한 다양한 표현방식으로 미국의 치부를 드러냅니다.

[스티어링 루비/미술작가]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인들은 마치 거대한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와 같은 상태입니다. 문화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창의적으로, 미국인들은 감금돼있습니다. 그리고 기묘하게도 이런 상태를 즐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개인전에는 스프레이 회화 연작과 도자나 브론즈로 만든 널찍한 대야를 연상시키는 설치조각 '베이션' 연작 등 11점을 선보입니다.

조각 위에 물감을 떨어뜨리고 유약처리를 한 작품, 낡은 천 조각들을 이어붙이거나 청동재료를 이용해 아비규환과도 같은 도시의 내부를 만들기도 합니다.

현실의 고통을 묘사했지만 정작 아름답기만 한 루비의 작품. 그런 역설 속에 '치

유'와 '구원'이라는 의도가 숨어있습니다.

[스털링 루비/미술작가]

"이렇게 새로운 형태로 재구축하고, (모든 고통을) 치유하고 정화한다는 의미에서 (도자를) 불로 태우는거죠."

뉴스와이 송광호입니다.

(끝)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 재·보선 D-10...여야 기선잡기 중반레이스
- 👉 <막오른 지상파 공개 코미디 일요일 3파전>
- 👉 베스트셀러 저자 구본형씨 별세
- 👉 손흥민, 獨 분데스리가 10·11호골 폭발(종합)
- 👉 <케리 방중, 대북압박 요구에 중국 대화 강조>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 기사 주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422&aid=0000008336>

인쇄하기

취소